

광주·서울, MICE 분야 공동 마케팅

서울관광재단·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 4자 협약

유치 경쟁력 제고·지역 상생발전 공동 협력키로

광주시와 서울시가 마이스(MICE) 분야 공동 마케팅을 위해 손을 잡았다. 광주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광주관광컨벤션뷰로, 서울관광재단 등 4자가 참여하는 'MICE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MICE 유치 경쟁력 제고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양 도시가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MICE는 기업회의(Meetings), 포상 관광(Incentives), 국제회의(Conventions), 전시·이벤트(Exhibitions·Events)의 약어로 비즈니스 관광을 총칭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항 광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 이용현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참

석해 MICE 상품개발 및 운영과 공동 마케팅 등 MICE 분야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MICE 공동마케팅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도시 투어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공동 MICE 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공동 추진 등이다. 양 도시는 앞으로 국내외 주요 MICE 전시회와 상담회 등에 참가해 MICE 상품을 알리기 위한 공동 마케팅을 펼치고 MICE 전문매체를 활용한 미디어광고와 웹진, 뉴스레터 등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한 홍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MICE 주최자 등의 현장답사 시 양 도시의 매력적인 명소를 함께 홍보하고, 양 도시를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MICE 행사를 대상(외국인 50명 이상 단체, 해당지역 1박 이상)으로 투어에 필요한 차량비, 식비 등 양 도시에서 각 1인당 1만원씩, 총 2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서울시와의 MICE 공동 마케팅으로 광주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최권범기자

마을 이야기 발굴 관광 산업화한다

'전남 마을 이야기 박람회' 30일-9월1일 무안서 개최

시·군 지자체 추천·공모 거쳐 22개 마을 선정

지역의 문화·관광·역사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한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해 관광 산업화하려는 첫걸음이 시작된다. 전남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전남도내 22개 시·군의 대표마을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이 간직한 이야기와 설화, 공동체 정신 등을 소개하는 '2019 전라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마을이야기 박람회는 전남도가 전남 22개 시·군 지역 내 문화적 콘텐츠 가치가 있는 자원을 탐색, 발굴해 지역의 문화·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문화관광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야기가 있는 마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 상품화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박람회의 목표다. 그동안 전남도는 시군 지자체 추천과 공모를 거쳐 22개 마을을 선정했다. 선정된 마을은 옛 문화와 역사를 간직하면서 새롭게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목포 삼학도마을, 여수 만덕동 석천마을 등 도시형 마을을 비롯 전통마을의 특성을 살려 공동체 문화를 일궈낸 나주 도래마을, 함평 상모체험휴양마을, 장성 황룡마을, 장흥 선학동마을 등이다. 또한 전통문화와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광양 하조마을, 곡성 죽동마을,

보성 도감마을, 화순 내평마을, 영암 엄길마을, 진도 연동마을 등이 주제마을로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렇게 선정된 22개 마을이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를 발굴해 새롭게 스토리텔링하며 이들 마을을 소개하는 동영상과 사진 등으로 마을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신들의 마을 이야기를 이야기꾼 주민들이 직접 나와 재미있게 들려주는 시간도 마련했다. 이와함께 행사장은 도내 22개 전체 시군의 홍보관,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부스, 마을 문화축제 공연장 등으로 이뤄진다. 전남도는 첫 행사 개최를 계기로 마을 이야기 박람회를 정례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대표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1년 동안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대표성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 및 광고로 활용돼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설화 발굴작업 등을 통해 전남지역에서 9천건의 설화 등을 모았는데, 이처럼 마을 이야기를 콘텐츠가 방대한 만큼 이를 활용하고 연계한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며 "과거의 마을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마을이 활성화되고 미래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N●! 아베’ 거리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산구의 한 거리에 ‘NO! 아베, OK! 광복’ 문구가 걸려 있다. 1km 구간에 걸린 가로 80cm, 세로 100cm 크기의 현수막은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을 지역위원회가 시민들의 모금을 받아 내 걸었다. /김애리기자

文대통령 “역사 성찰·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의연한 대응”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이틀 앞둔 이 날 독립유공자 및 유공자 후손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상생·평화·변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옹호하며 사람을 증시하는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한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역사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은 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빌미삼아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일본을 비판하는 동시에 한국이 이를 반면교사 삼아 인류 보편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오찬에서 “이틀 후면 74번째 광복절을 맞이한다”며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에 맞는 광복절이기에 더욱 각별하다”고 말했다. 또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고,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며 “일본과도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왔고,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취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00년 전 선조들은 3·1 독립운동으로 자주독립 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렸고 그 의지와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며 “3·1 독립운동으로 우리 국민은 왕정과 식민지의 백성에서 공화국 국민이 됐고,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기어코 독립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당당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됐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 동북아에 평화·번영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국민의 자부심에 원천이 돼준 독립유공자께 깊은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연철뉴스

전라선 KTX, 내달 20일부터 주말 4회 증편

주승용, 수서발 전라선도 운행 촉구

오는 9월20일부터 전라선 KTX가 주말에만 4회 증편 운행된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여수)은 13일 “그동안 코레일에 여수 관광객 급증으로 전라선 KTX 증편을 지속적으로 요구

했는데, 코레일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말만이라도 증편 운행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예매를 시작해 9월20일 첫 증편 운행하고, 금·토 용산에서 오후 8시35분, 토·일 행선에서 12시10분, 여수에서는 토

·일 8시2분과 오후 7시32분에 운행한다. 전라선 용산-여수간 KTX는 2011년 10월 개통초기 주말기준 1일 10회에서 올해 7월 현재 28회로 증편됐고, 9월부터 주말 32회로 추가 증편 예정이다. 또한 올해 기준 일평균 이용객은 1만7천919명으로 2016년 1만626명 보다 7천293명 (68.6%)이 증가했다. 주 부의장은 “용산-여수간 전라선 KTX 주말 증편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만, 여전히 수서발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국토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서역에서도 전라선 고속철도가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호남 최초 스마트폰 방송국 광주매일TV

[스타브랜드] 현지기업 '북은 수돗물 해결은...특허받은 정수정치로'

[파워인터뷰] 김영록 전남도지사

광주매일TV KCTV광주방송 오성수의 이슈 분석 - 7월 넷째주

▶ m.kjdaily.tv ▶ m.kjdaily.com PC·스마트폰·유튜브·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시청문의 062)650-2024

The 18th FINA WORLD MASTERS CHAMPIONSHIPS

DIVE INTO PEACE

평화의 물결 속으로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마스터스주영선수권대회

2019. 8. 5. - 8. 18. (14일간)

www.gwangju2019.com/masters

Official FINA Partners: arena, Myrtha Pools, SAMSUNG

National Sponsors: kt, 광주은행, 흥원증권, ASIANA AIRLINES, 시흥건설, KIA, 롯데제과, 한진해운

Official FINA Suppliers: GORANEX, Malmstrom, MIKASA, PLANNEW, 아시아항공, OS&S, ADI, HEMA

National Supporters: (주)세화여행, NHN 티켓링크, 제일 여객선, 동명산업